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안전도시 광주' 이끈다

북구 오치동에 개관...8개 체험관·23개 시설 등 갖춰 전국 최초 '호우 안전' 특화·소방공무원 교관 배치도

광주의 제1호 안전 시책 중 하나인 '광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빛고을안전체험관)이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빛고을안전체험관'은 세월호 참사와 화동 건물 붕괴 참사 등 안전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추진, '안전 도시, 달라진 광주'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오치동 '빛고을안전체험관'이 이날 문을 열었다. '빛고을안전체험관'은 연면적 7천860㎡(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체험관(8개)과 체험 시설(23개) 등을 갖추고 있다.

체험구역은 ▲지하 1층 어린이 안전체험 ▲1층 산악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 ▲2층 화재안전, 생활안전 ▲3층 응급안전, 학생안전 등으로 구성됐다.

각 체험 구역에서는 ▲바위타기·흔들다리 건너기·계곡횡단하기 ▲침수 공간·계단·차량 탈출 ▲지진 VR·지진 붕괴 대피·72시간 생존 ▲화재 대피·피난기구탈출·119신고·화재진압 ▲지하철·승강기·차량·가스 안전 ▲심폐소생술·기도폐쇄처치·생활 응급처치 ▲학생 중독·폭력 방지 ▲키즈 안전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호우 안전 체험'을 특화했으며

며 광주의 대표 명소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산악 안전 체험'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5회씩에 약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체험구역별 수용 인원도 20명 이하로 제한한다. 다만 당분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일일 체험 횟수를 3회, 수용 인원도 10명 이하로 제한·운영한다.

또 각 소방서 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23명을 체험 교관으로 배치, 전문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관 이용 후에는 발급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체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발급일은 체험일 기준 2-5일 이내다.

시는 정상 운영 땐 하루 최대 교육 인원 900명, 연간 27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고 있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신청(1월1일), 설·추석 연휴다. 체험관 이용은 무료다. 예약은 체험관 홈페이지와 전화(062-606-4445·6)로 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의 대원칙과 함께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19일 오후 북구 오치동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집중 호우시 지하에서 대피하는 체험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관 건립

기본계획용역 등 2023년 준공...체류형 관광자원화 기대

고봉 기대승 선생의 철학 등 선비 문화·체험 수련 시설인 '월봉서원 선비 문화 체험복합관'(이하 '체험복합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광산구 광산동 월봉서원 인근에 자리한 체험복합관에 대한 기본 계획 용역을 착수한 뒤 공공 건축 심의와 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완료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 119억원이 투입되는 체험복합관(면적 2천500㎡)은 선비 문화 정신의 월봉서원과 민주·인권·평화 정신의 산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 시설로 구축할 계획이다.

체험복합관 건립 사업은 지난 3년 간 종종 내부 소송 등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업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근 해당 마을 주민 동의

와 중종의 토지 사용 승낙으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시는 수차례 주민과 중증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앞으로 체험복합관이 건립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외국인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교 전통문화 등 선비 문화를 체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봉서원은 매년 3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광주 최고의 선비 문화 체험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전국 향교·서원 최초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 등재됐다. 지난해엔 '살롱 드 월봉'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이충행기자

전남도,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박차

투자유치 지원 '네트워킹 데이' 행사

전남도는 19일 화순백산산업특구에 위치한 전남생물의약연구소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과 공유와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는 등 관련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엔 전남도의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발굴한 기술 혁신 창업기업 8개 사와 삼성증권, 베이스캠프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우수 3개 투자사가 참석했다. 창업 기업은 연구개발 성과와 보유 기술을 공유하고 투자사는 창업 기업을 심도있게 컨설팅했다.

행사에 참여한 케이블루바이오㈜는 84개 암 유전자를 동시 분석해 혈액암 진단, 예후 추정, 치료 효과 판정, 잔류병소 검출에 적용할 수 있는 'NGS패널'을 개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특허와 함께 분자진단 분야 세계 최고 저널에서 발표한 성

과 등을 설명했다.

㈜씨엔큐어는 중앙 내 침투한 박테리아 주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 조직을 제거하는 '박테리아 매개 면역치료 플랫폼 개발 기술'을 소개했다. 이 기술은 균주의 독성을 줄여 생체 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앙 치료 효율을 향상해 난치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화순군이 매년 10억원을 투입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사업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8개 창업기업을 지원해 공정 개발,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9개 창업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난 8월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오는 11월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내년부터 광주서 전동킵보드 불법주정차 단속

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앞으로 전동 킵보드와 전동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불법 주·정차 했을 땐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전동 킵보드 등 이용 급증에 따른 교통 사고 방지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대 주요 대책은 ▲'광주시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 ▲교통 법규 위반 대책 ▲킵보드 이용 시 대여 업체 안전 운행 사전 안내 의무화 ▲킵보

드 제반 사항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대여 업체 안전 관리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현재 광주에선 7개 업체·5천714대의 전동 킵보드가 운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40대에 비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관련 조례를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 견인 시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대여 업체에 부과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다.

또 법규 위반 또는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동 킵보드 불법 민원 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오승지기자

제이영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43, 1309호 (여의도동 한서빌딩) TEL:02)782-6630